



전력계통 감시 · 계측의 첨단기술기업

프로컴시스템(대표이사 윤상현)은 1986년 설립한 이래 매년 매출액의 2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는 전력계측/제어 분야의 연구개발 전문 벤처기업이다.

전력계통 고장진단 기술의 선진국 예상을 탈피하기 위하여, 활발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국산 기술 개발에 성공, 이를 상용화하였다. 이와함께 전력 에너지 감시 · 제어 및 계측기기의 성능 향상과 다기능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외국 설비에 비하여 국내의 전력에너지 환경을 충분히 고려한 독창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 효과 창출

전력계통분야의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여 국산신기술인증(NET마크), 국산제품인증(NEP마크)취득, 전력에너지절약을 위한 퍼지디멘드예측(특허청) 기법 특허출원, 최첨단 기술개발의 국산화 달성 등 전력전자산업의 전문 업체로서 꾸준히 성장해왔다.

전문 연구진들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하여 전력계통 고장진단 기술을 비롯한 전력감시 분석기술 등 독자적인 국산 신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한전과 철강, 중화학 및 정유설비에 대한 국내 시장의 관련 기기들을 상당수 국산화로 대체하여 국내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통해 전력계통 고장기록기술 등 신기술 인증 4건, 특허 5건, 신제품 개발 10건, 연구개발 논문 20건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 외에도 경향전기에너지 대상 수상(1998년), 기술개발 유공 철탑 산업훈장 수훈(1999년), 국산신기술(KT 마크) 인정, 원전설비 제작업체 등록(2000년)의 성과도 창출해 냈다.

특히 전력품질감시장치 PSDM-TS(계통현상분석장치)는 전력계통상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생 즉시 자동으로 체크하고 분석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DGMS(직류제어전원 접지검출 설비)는 발전소 내 직류설비와 전선로의 절연상태를 상시 감시하여, 접지사고 발생시 고장선로를 자동으로 검출하여 지락저항값 접지발생과 접지발생 극성을 정확하게 운전원에게 알려줌으로써 발전 설비의 기능상실 이전에 보수작업의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